

‘한방진흥원’ 곤충산업 육성 나선다

농림부 ‘지네 이용 동물사료 개발’ 생명산업 우수기술 선정... 예산 12억 확보

전남도 한방산업진흥원(원장 조정희)이 지네를 이용한 동물사료 개발 등 미래 고부가가치로 떠오른 곤충산업 육성에 발 벗고 나선다.

전남도 한방산업진흥원은 최근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의 생명산업 기술 개발과제 일환인 현장 우수기술 발굴 과제에 최종 선정됐다.

한방산업진흥원은 ‘지네의 과학적 약리활성 검증’을 통한 동물사료 산업화 기반 구축을 목표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총 12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전남 곤충산업 육성 및 체제 구축을 위한 국비(농림부) 기초 재원을 주축함으로 농·산·학·연·관 연계체계 구축과 곤충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위한 기능성 검증 연구와 향후 사료, 화장품, 식품, 의약품 산업 등의 활성화 방향 모색 등을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특히 약용곤충가운데 민간에서 육계용 사료로 사용하고 있는 지네의

면역력, 항염증, 항균작용에 대한 약리활성을 평가하고 ▲기능성 사료 첨가제·부산물 활용을 위한 육계용 사료 개발 ▲약용 곤충자원의 대량 사육 시스템의 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또한 (재)생명산업진흥재단, 전남도농업기술원 곤충잡업연구소, 전남곤충협회, TMR 사료업체, 전남도축산기술연구소, 대학, 농가 및 관련 기업을 연계한 농·산·학·연·관 컨소시엄 구성을 추진하고, 전남 곤충산업

선점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구성해 명실상부한 전남의 곤충 산업을 선도할 방침이다.

전남도 한방산업진흥원 관계자는 “향후 곤충 사육농가 소득 증대와 친환경농업 활성화 등으로 인해 곤충산업 시장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9년 9월 문을 연 전남도 한방산업진흥원은 한의약의 과학화·산업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장흥군 안양면 기산리에 위치하고 있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국제 휴연구가들 환영 성주풀이 '솔로시터'로 지정된 담양군 창평면 삼치천 마을주민들이 지난 10일 '유네스코 국제 휴건축 컨퍼런스'에 참가한 외국 휴연구가를 위한 환영식에서 '성주풀이'를 선보이고 있다. '성주풀이'는 집을 짓기전 집터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성주신에게 제를 지낼때 부르는 민요이다. <담양군 제공>



의병장 충의공 최경희 장군 추모제전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으로 활약한 충의공 최경희(1532~1593) 장군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첫 공식 행사(享祀)가 11일 화순군 동면 백운리 충의사에서 봉행됐다.(사진)

충의공 최경희 선생 호국정신 선양회(회장 강동원)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최인기 국회의원, 홍익식 군수를 비롯한 군 각급 기관단체장과 사회단체, 군민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 홍익식 화순군수는 “앞으로 호국

정신과 충절을 기려 의향(義鄕)의 고장임을 널리 알리고, 지속적인 선양 사업을 통해 화순의 정체성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화순 출신인 충의공 최경희 장군은 임진왜란 당시 상종임에도 불구하고 의병을 일으켜 혁혁한 공을 세웠다. 진주성 2차 싸움에서 9일만에 성이 함락되자 진주 남강에 투신 순절했다. /중부취재본부=정운수기자 unsu@

영산강 강가의 가을축제 27일 개막

나주시는 영산강 사업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영산강의 강 문화를 만들기 위해 27일부터 31일까지 영강동 둔치공원에서 ‘영산강 강가의 가을축제’를 개최한다.

“더불어 아름다운 우리 강, 한국의 정취와 정서가 흐르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같은 시기 나주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21~30일)와 반남 고분군 국화축제(28~30일), ‘나주 시민의 날’(30일) 행사 등과 연계해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나주시의회는 12일 제 151회 임시회에서 관내 북한이탈 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소속감을 갖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이탈 주민 정착 지원조례’를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번 조례제정을 위해 나주경찰(서장 박병동)은 지난 8월부터 조례안의 기초자료를 수집, 지원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 나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들과 수

장성서 감 재배농민 학술 심포지엄

우리나라 감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학술행사가 장성에서 열린다.

한국 감연구회는 14일 장성 홍길동체육관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감 재배농가와 공무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성 감산업 현황 및 성공사례(장성군 농업기술센터 최영상 지도사) ▲품종

안배전략과 신품종 특성(단감연구소 김성철 연구사) ▲감나무 저온피해 대책(농촌진흥청 마경복 연구사) ▲꽃감 제조 및 문제점(상주 감시험장 정경미 연구사) 등 고품질 감생산을 위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연구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나주, 전남 첫 탈북주민 지원 조례 만든다

교육·법률 혜택... 정착 정착 적극 돕기로

나주경찰 자료 수집 등 도우미 역할 특목

전남지역 최초로 나주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 주민들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관련 조례가 만들어진다.

나주시의회는 12일 제 151회 임시회에서 관내 북한이탈 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소속감을 갖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이탈 주민 정착 지원조례’를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번 조례제정을 위해 나주경찰(서장 박병동)은 지난 8월부터 조례안의 기초자료를 수집, 지원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 나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들과 수

차례 협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로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직접 지원하거나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언어·기초학력 교육 등 사회 적응 사업을 비롯해 고충, 생활, 법률, 응급구호 등에 나주시가 예산을 직접 지원한다는 것.

나주경찰서 홍근 경사는 “북한이탈 주민들과 수시로 접촉하면서 크고 작은 고충을 해결해 왔던 담당 경찰관의 경험을 토대로 이번 조례안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제정에 앞서 나주경

찰은 북한이탈 주민들의 애로점을 해소시키기 위해 지난 4월 관내 영산포 제일병원과 김치과, 강동신법률사무소와 업무협약을 맺고 북한이탈 주민들이 무료로 각종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했다.

북한이탈 주민 장모(여·70)씨는 “몸이 불편한데도 그동안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아 제대로 치료를 못했다”며 “현재 경찰의 도움으로 무료로 정교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 관내에는 12명의 북한이탈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나 대부분 남북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생활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채 극심한 생활고까지 겪고 있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전 북

순창 ‘산림 테라피밸리’ 조성

웅결산에 60억원 투입

휴양·치유 기능 갖춰

오는 2013년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웅결산에 휴양과 치유·체험을 할 수 있는 ‘산림 테라피밸리’가 조성된다.

순창군은 웅결산 일원 282ha의 산림에 60억원을 투입해 올해부터 2013년까지 ‘산림 테라피 밸리’를 완공할 예정이다. 현재 시설계획영역 검토중이며 다음달부터 공사가 본격 시작된다.

군은 수려한 산림자원과 계곡을 활용한 건강, 장수고을을 이미지에 적합한 숲 치료, 숲 휴양, 산림문화, 레저 등 테마가 있는 ‘산림 테라피밸리’를 조성해 증진하는 산림문화 수요에 대비할 예정이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lhee@

또 맑은 물을 자랑하는 섬진강 수자원과 우수하게 보존된 웅결산의 다양한 산림기능을 활용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높이고 건강을 재충전하기 위한 자연친화적 복합휴양단지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림치유길, 향기수목원, 허브원, 스토리가 있는 구구팔팔치유구곡 등 치유시설과 힐링센터, 청소년과 가족단위 이용객을 위한 타자나, 모험놀이 등산 등 산림 레포츠시설을 다양하게 조성한다.

군은 ‘산림 테라피밸리’가 조성되면 숲과 산림자원이 가져다주는 치유효과를 활용해 건강과 자연치유 면역을 높이기 위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할 계획이다.



흥부제 떡메치기 체험

최근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야외광장에서 열린 ‘제19회 흥부제’ 행사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떡메치기를 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경희대 민속학연구소는 고전소설 ‘흥부전’ 배경무대로 남원 인월과 아영면으로 고증한다 있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자 bs8787@

최고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야외광장에서 열린 ‘제19회 흥부제’ 행사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떡메치기를 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경희대 민속학연구소는 고전소설 ‘흥부전’ 배경무대로 남원 인월과 아영면으로 고증한다 있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자 bs8787@

군산 복합물류단지 본격 개발

개사동 32만9000여㎡ 아파트 등 민간투자

군산지역 산업단지의 물류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군산 복합 물류단지 개발사업’이 본격화된다.

군산시는 개사동 옥녀저수지 일대 32만9000여㎡의 부지에 물류터미널, 집배송 시설, 창고, 아파트(270여가구), 아파트형 공장 등이 들어서는 복합 물류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U건설이 민간투자 방식으로 진행될 이 사업의 시행사로 나섰다.

이 업체는 이달 중에 전북도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고 6개월 이내에 사업인가를 받아 착공할 방침이다. 시에서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을 하면 부지매입과 시설물 건립을 맡아 공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800여명이 투입되는 물류단지 조성사업은 오는

2014년말 완공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 도시와 생산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사업부지의 93%가 사유지여서 토지주와의 가격 협상문제, 업체의 자금조달 능력이 사업 성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합 물

류단지가 들어설 주변은 서해안 고속도로 동군산 IC와 가깝고 전주~군산 간 국도 21호선에 근접해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다. 한편 군산시의 U개발은 지난 7월 복합 물류단지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자 nogusu@

정읍 관문 시외버스터미널 리모델링

정읍 관문으로 40년 넘게 사용돼 노후화된 정읍 시외버스터미널이 리모델링된다.

정읍시는 내년부터 연지동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한 증·개축을 들어가 투입되는 물류단지 조성사업은 오는

2013년까지 25억원을 들여 현대화 사업을 할 계획이다. 건물 신축에 20억원 토지 매입 5억원이 소요되며,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터미널은 1322㎡부지에 3층 규모로 신축된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자 parks@

뉴스 브리핑

전주 실내체육관 현대식 경기장으로 탈바꿈

전주 KCC농구단의 요람인 전주 실내체육관이 2011-2012 한국프로농구 시즌을 앞두고 현대식 경기장으로 전면 탈바꿈된다.

전주시는 4억원을 들여 전주 실내체육관의 노후화되고 협소한 관람석 의자 전체 4081석을 올 농구시즌 이전에 전면교체했다. 또 HDTV 방송 전면시행을

앞두고 전등 조도를 상향시켜 중계방송시 선명하지 못한 화면이 송출되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한편 KCC는 지난 2001년 대전에서 전주로 연고지를 변경하면서 전주 실내체육관을 홈구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군산시 쌀 가공식품개발 창업 지원

군산시가 쌀 가공식품의 개발을 위해 식품업체의 창업을 지원한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는 쌀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가공식품 개발에 나설 식품업체 창업 사업자를 모집한다. 이는 최근 쌀 소비의 감소에 대비하고 쌀 농가의 소득창출을 위해 쌀 가공식품 업

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선정된 1개 업체에 내년 7월까지 1억 원을 지원해 쌀가공 식품 개발과 상품화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금은 주로 가공 장비 구매, 포장지 개발, 홍보 등에 쓰인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자 nogusu@

남원 종교계 10·26 시장 재선거 공명선거 촉구

남원시내 종교인들은 11일 10·26 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등 종교인 대표들은 “재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져 다시는 남원지역에서 불미스러운 사태가

일어나기 않기를 바라며 시민의 명예와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민주주의 근간을 든든히 세우는 당당한 유권자가 되도록 투표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자 bs8787@

김제시, 산림청 산림소득사업 공모 선정

김제시가 산림청 주관의 ‘2012년도 산림소득 사업 분야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9억2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번 선정된 산림소득사업은 ▲부가가치가 큰 톱밥배지 표고버섯 생산사업 ▲약용 임산물 재

배사업 등 2개사업이다. 김제시 백구면 머쉬타운 영농조합은 톱밥을 이용해 표고버섯 배지를 키우는 센터를 건립해 연중 버섯배지를 농가에 공급하게 된다.

/전북취재본부=홍운기기자 hnews@

천만송이 국화 향 느껴보세요

익산 28일부터 국화축제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익산 천만송이 국화 축제’가 28일부터 10일간 중앙체육공원에서 펼쳐진다.

‘국화, 보석과 사랑을 나누다’를 주제로 한 이번 국화축제에는 총 12만여 점의 국화가 전시되거나 출품된다.

이 축제의 핵심은 ‘국화전시회’와 ‘경진대회’다.

국화전시회에는 그간 익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1년간 기른 국화 6만여 점과 농가에서 내놓은 5만5000여 점이 함께 전시된다. 12m 높이로 꾸며진 ‘미륵사지탑’과 2.8m 높이의 ‘사리장엄’, 7m 높이로 보석을 테마로 한 ‘유열개

슬’ 등의 조형물이 관람객의 눈길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경진대회에서는 전국의 국화 전문가와 업체 등에서 정성을 들여 키운 국화 500여 점이 출시돼 우열을 가린다. 이 대회 대상에는 국부총리상과 함께 부상으로 400만 원이 주어진다.

국화축제 기간에는 ‘전국 물문화 축제’와 ‘전국 인라인 마라톤 대회’, ‘족구대회’ 등 체육행사와 함께 농특산물 홍보·판매행사가 열린다.

익산시 농업기술센터 진선섭 연구개발과장은 “올해는 큰 작품을 전시했고 공간배치를 새롭게 했기 때문에 여는 해보다 관람객의 감동을 클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